

HRI 체어퍼슨노트

# CHAIRPERSON NOTE

2011.09.26 (통권367호)



## 경제이슈

유로존, 신용등급 강등 도미노 우려  
유럽계 자금, 국내 금융시장에서 이탈 지속

## 경영노트

신제품 개발 방식의 진화

## 사회 트렌드

올해 1인당 GDP 세계 32위

## 저널 브리프

어려운 비즈니스 매너 TOP5

## 洗心錄

오늘은 가고 내일은 온다

□ 유로존, 신용등급 강등 도미노 우려

- 프랑스 주요 은행 신용등급 하향에 이어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됨에 따라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 연쇄 강등 우려가 급증
  - 이탈리아 국가 신용등급 강등 : 지난 20일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이탈리아 재정악화 우려를 지적하며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
  - 이탈리아 주요 은행 신용 등급 강등 : 또한 S&P는 21일 인테사 산파올로 등 이탈리아 주요 7대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
  - 유로존 신용등급 연쇄 강등 우려 : 10월 282억 유로 규모의 국채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는 스페인의 신용등급도 강등될 우려
-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유로존 주요 국가들과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연쇄 강등되면서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른 2차 금융위기 우려도 급증

□ 유럽계 자금, 국내 금융시장에서 이탈 지속

-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유럽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내에 유입되었던 유럽계 자금이탈이 지속
  - 주식시장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럽계 금융회사들은 8월에만 3조 5,649억의 주식을 순매도한 데 이어 9월 들어서도 총 7,560억 원의 주식을 순매도
  - 채권시장 : 8월에 국내 채권시장에서 1조 2,023억 원의 유럽계 자금이 이탈한 데 이어 9월에도 현재까지 9,579억의 유럽계 자금이 빠져나가며 유럽 자금의 국내 이탈이 지속
  - 금융시장 불안 확대 : 국내에 유입된 유럽계 자금의 이탈이 지속되며 코스피지수 1,700선이 재차 붕괴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
- 국내 금융시장은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유럽을 비롯한 외국계 자금의 이탈이 지속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 불안심화 및 실물경기의 악화가 우려

□ 신제품 개발 방식의 진화<sup>1)</sup>

- 컨설팅 기업 부즈 앤 컴퍼니에 따르면 기업이 개발한 신제품 중 실제 출시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며 투입되는 자산의 70%는 사장되고 있음
  - 신제품이 사장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지나치게 세밀하고 체계적인 개발로 출시가 지체되는 동안 소비자의 눈높이는 더욱 높아지기 때문임
  - 이에 GM이나 도요타 등은 Lean 생산 방식<sup>2)</sup>을 도입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렸으나 이 역시 혁신적인 설계의 도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이에 따라 최근에는 초기 개발 단계부터 유연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기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개발 방식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음
  - 처음부터 다양한 대안에 대응 가능한 설계를 수립하고 핵심 부품 및 기술만 직접 개발하는 방법을 통해 신제품 개발 시간을 최소화함

< 3세대 신제품 개발 방식 >

개발 초기	개발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 콘셉트를 지속적으로 도출</li> <li>• 다양한 대안의 개발과 테스트</li> <li>• 부품 조립 단위별 개발</li> <li>• 위험 요소의 조기 감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설계 및 부품의 활용</li> <li>• Just in Time 도입</li> <li>• 수요자 및 공급자간의 협업</li> <li>• 위험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li> </ul>

- 변화가 심화되는 경영 환경 속에서는 제품의 핵심 가치를 제외한 부분은 기존 부품이나 기술을 재활용하는 등의 유연성과 민첩성이 요구됨
  - 미국의 방산 업체 오시코시는 7개월 내에 신차를 개발하라는 국방부 요청을 받고 기존 부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개발에 성공함
  - 애플 역시 부품 공급업체들이 기존에 개발한 기술과 모듈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수요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음

1) 본 자료는 매일경제의 ‘신제품 개발 유통성 있게 하라... 너무 따지다 보면 타이밍 놓쳐(2011. 7)’를 요약 정리함  
 2) GM과 도요타는 먼저 차량의 프로토타입만 만들고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따라 신차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했지만 프로토타입에서 사양이 확정되어 버린다는 한계가 있음

□ 올해 1인당 GDP 세계 32위<sup>3)</sup>

-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만 3000달러대를 기록하며 세계 32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넘어서며 26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GDP) IMF의 최신 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GDP는 1조 1638억 달러로 전 세계 184개 국 가운데 지난해와 동일한 15위로 예상
  - 미국(15조 648억 달러), 중국(6조 9885억 달러), 일본(5조 8554억 달러), 독일(3조 6286억 달러), 프랑스(2조 8083억 달러)가 1~5위를 차지
  - 최근 급성장 중인 브라질(2조 4810억 달러)이 올해 영국(2조 4810억 달러)을 밀어내고 6위에 올라설 것으로 예측됐음
- (1인당 GDP)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만 3749달러로 지난해보다 2계단 오른 32위가 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만 9162달러로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며 39위까지 밀렸음. 하지만 2010년에 2만 달러를 회복한 데 이어 올해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1위 국가는 지난해에 이어 룩셈부르크(12만 2272달러)로 예상되며, 카타르(9만 7967달러)가 노르웨이(9만 6591달러)를 밀어내고 2위가 될 것임
  - 미국은 4만 8147달러로 지난해보다 5단계 떨어진 15위, 일본은 4만 5774달러로 지난해보다 1계단 하락한 18위로 예측
- (PPP 기준) 실질 소비능력을 보여주는 구매력(PPP)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올해 1인당 GDP가 3만 1754달러로 3만 달러를 돌파하며 1단계 상승한 세계 26위가 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PPP 기준 1인당 GDP는 2016년에 4만 361달러로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PPP 기준 1인당 GDP는 카타르가 10만 2891달러로 1위, 룩셈부르크가 8만 4829달러로 2위
  - 일본의 PPP 기준 1인당 GDP는 3만 4362달러로 한국보다 불과 2609달러 많고, 순위도 한국보다 1단계 앞선 25위로 전망

---

3) “올 1인당 GDP 세계 32위”, 문화일보, 2011.9.22.

□ 어려운 비즈니스 매너 TOP5<sup>4)</sup>

■ 사실 비즈니스 매너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순간순간의 상황과 상대방에 맞춰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최선임

① 비즈니스 문서 쓰기

- 직장 내에서는 문서 커뮤니케이션이 빈번하지만 형식이나 비즈니스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 비즈니스 문서 쓰기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음
- 비즈니스 문서를 작성할 때는 명확하게 제목을 표시하고, 소속을 밝힌 후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간결하게 작성하여 문서 내에 모두 포함시키고 마지막에는 서명을 추가하는 것이 좋음

② 비즈니스 자리 배치

- 예의를 중요시하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비즈니스 자리 배치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장소별로 상석이 상이하여 자칫 헛갈릴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조수석 뒷좌석이, 엘리베이터는 버튼의 대각선 자리 등이 상석이며 일일이 상석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상대방을 가장 안쪽을 안내하거나 선호하는 자리를 정중하게 물어보는 것도 괜찮음

③ 존대말 사용법

- 비즈니스 존대말은 평상시에 구사하는 존대말과는 다르며 특히 상대방과의 관계나 나이차에 따라 호칭을 구분해야 함
- 평상시 흔히 쓰는 '~요' 대신 '~겠습니다', '~신지요?'로 대체하며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씨', '자네' 등의 호칭 사용을 자제

④ 식사 때 화제 이어가기

- 잘 모르는 상대방과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 대화를 누구에게나 쉽지 않음
- 비즈니스 매너 전문가들은 대화 중 적절한 감탄사를 곁들이고 특히 질문을 이어가면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함

⑤ 손님맞이

- 비즈니스 손님을 안내하거나 면담 중 상사를 소개하거나 연락을 취해야 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자칫 손님에게 무례하게 비춰질 수 있음
- 손님을 약속 장소로 안내할 때는 목적지를 미리 알리고 손님보다 2~3보 앞선 걸음을 유지하며 안내할 곳의 반대쪽을 따라 안내함
- 면담 중 상사가 인사하러 들어오면 일어나 상사를 고객에게 소개하고 고객이 앉은 다음 자리에 앉아 상사에게 경과를 보고하고 면담을 진행함
- 면담 중인 상사 또는 직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고객에게 메모의 내용을 보이지 않도록 전달

4) 「비즈니스 문서 쓰는 법 '잘 몰라요」 (한경Business, 2011.9.5) 참조

## □ 오늘은 가고 내일은 온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면서 온도는 내려가고 차가운 계절로 가고 있다. 사람마다 계절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지만 열정적인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서늘해진 기온이 아쉬울 수도 있다.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마음먹었던 일들도 제대로 못했지만 오늘은 지나간다. 지난 간 날들을 후회만하면 내가 원하는 내일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타골, 라즈니쉬는 《까비르 명상시》라는 저서에서 “똑같은 아침을 맞아본 일이 있는가. 똑같은 하늘, 태양을 본 일이 있는가. 어제의 하늘은, 어제의 태양은, 결코 오늘의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지나갔으면 끝난다는 것이다. 새로운 내일을 위해 나의 삶의 방향을 재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다. 버니 시겔의 「내 마음에도 운동이 필요해」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숫이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합니다.  
당신 안에는 얼마나 많은 다이아몬드가 숨어 있어  
이제나 저제나 세상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고통은 바로 숫을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압력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보다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해주는 축복입니다.』

다가올 내일에 성공이라는 결과물이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땀과 노력 등 고통의 시간을 견디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에 대한 인내가 없으면 내 안에 잠재해 있는 수많은 다이아몬드는 내일이라는 시점에 그냥 숫으로 머물고 말 것이다. 즉, 결과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척박한 땅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파란색의 새싹을 솟아나게 하는 잡초와 같이 어려움을 견디는 생명력을 가져야 할 것 같다. 내일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게 하려면 우리는 현재 주어진 환경을 탓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엄청난 수고를 견디는 인내의 시간을 기꺼이 보내야 할 것이다.

**Concentration comes out of a combination of confidence and hunger.**

집중력은 자신감과 갈망이 결합하여 생긴다.

아놀드 파머(1929~ ) 미국의 세계적인 골프선수